



‘엣지’ 있는 송년회 매너 내년 비즈니스 성공을 기약한다

지나가는 한 해에 대한 아쉬움과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에 젖게 되는 연말은 너나 할 것 없이 술렁거리는 분위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다. 프로 비즈니스맨에게 있어서 연말은 이런 심리적 흔들림에 젖어 있을 시간이 아니다. 이때에는 지나간 한 해에 놓쳐버린 것을 교훈 삼아, 다가오는 해의 비즈니스 성공의 발판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송년회가 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글_ 정영순(월드식세스 대표, 「글로벌매너 요령만요렇게」 저자)

_ 파트너 입장에서 송년회를 계획하라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송년회 일정은 될 수 있으면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연말이 되면 다른 약속들이 잡힐 가능성이 많아서 일정을 잡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말과 가깝게 약속을 잡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일찍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약속이 많아 분주할 때 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심적으로 편안하기 때문이다. 편안한 마음이라면 상대에게 좋은 이미지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송년회 계획을 할 때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송년회 장소를 선택하지 말고, 그가 어느 정도 분위기의 송년회를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아 두고,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 고급 레스토랑의 우아한 분위기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약간은 북적거리는 분위기도 가능할 것인지를 염두해야 한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송년회에 초대할 때, 송년회의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소와 시간은 물론 그곳의 분위기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의상을 준비하고, 또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비즈니스 파트너가 송년회에 나타나서 당황하는 기색이 있다면 송년회 준비가 잘못된 것이고, 옛지있는 한 해의 마무리가 어려워질 지도 모른다.

— 희망을 이야기하는 송년회 자리를 만들어라

송년회를 비즈니스로 활용한다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당신이 그런 의도로 송년회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눈치를 채지 않도록 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그동안에 있었던 실패나 갈등 등에 대한 대화를 피하고, 긍정적이고 쾌활한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노력을 한다. 한 해 동안 그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해도 다음 해에 대한 희망을 붙여 넣는 대화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다.

송년회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게 된다. 그럴 때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을 모두 소개해 주고 인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화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말을 하면서 골고루 눈길을 보내거나 가벼운 질문을 해서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송년회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을 한 가지 들라고 하면 뭐니뭐니 해도 술이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송년회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이 송년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에서도 지나치게 과음을 하게 되는 술자리가 가장 곤혹스러운 자리라는 것이다. 또 송년회 술자리에서 최악의 매너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억지로 술을 권하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송년회 술자리에 대해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자. 새로운 송년회 술자리 문화를 만들어서 송년회 술자리에 대한 부담이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안심시키자. 이런 배려가 송년회에서 자신을 옛지있게 인식 시키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가장 기분이 좋을 만큼 취기가 올랐을 때까지만 술을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샷'을 외쳐서 술을 강권하거나, 폭탄주를 만들어 돌리거나, 자신이 마시던 잔에 술을 부어서 다른 사람에게 권하거나 하는 행동은 삼가한다. 특히 외국 비즈니스 파트너라면 그런 술자리 문화는 절대 피하는 것이 좋다.

— 노래방, 분위기 파악을 잘하라

노래로서 흥을 돋우는 것은 송년회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노래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야 한다. 자신이 노래를 잘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권한다고 해서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것은 좋은 매너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부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선곡을 할 때 자신이 부르고 싶은 곡만 입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곡을 입력하기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입력을 시키는 매너도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노래를 할 때 자신이 잘 아는 노래라고 해서 일어나 같이 부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물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의도이고, 모두가 말없는 함의를 하는 경우에는 함께 부르는 것도 상관은 없다. 또, 다른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는 대화를 하거나 바깥에 나가지 않아야 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잘 들어주는 것이 좋다. 굳이 나가야 할 경우가 생기면 노래가 멈춘 후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함께 간 사람들은 많고, 자신이 곡은 너무 길 경우에 끝까지 다 부르지 말고 1절만 부르자. 다른 사람들이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송년회에서 비즈니스 파트너와 노래방을 간 경우라면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것을 즐길 생각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모두가 즐거운 분위기에서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